

퇴역군인, 전사회의 존중을 받게 해야

—퇴역군인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광범한 퇴역군인과 퇴역군인사업일군들을 격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립법의 형식으로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 〈중화인민공화국퇴역군인보장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진은 퇴역군인 특별 초빙회. / 신화넷

“새시대, 새 로징에서 퇴역군인사업은 새로운 담당을 보이고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전국 퇴역군인 사업회의가 7월 29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퇴역군인사업에 중요 지시를 내리고 표창받은 모범 단위와 개인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으며 퇴역군인사업에 종사하는 동지들에게 진철한 문안을 보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광범한 퇴역군인, 퇴역군인사업일군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광범한 퇴역군인, 퇴역군인사업일군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지도로 혁명군인의 본색을 유지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기여하며 분발노력하여 새로운 성적을 따내고 새로운 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전략과 전반 국면의 높이에서 퇴역군인사업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설명하고 새시대 퇴역군인사업을 잘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퇴역군인사무부 정책법규사 사장 진군영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전면적이고도 깊이있고 사상이 심오하며 매우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퇴역군인사업에 대한 깊은 중시와 광범한 퇴역군인에 대한 진철한 배려를 충분히 구현했다.” 퇴역군인사무부 인계 배치사 사장인 조국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광범한 퇴역군인들에게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을 호소했는바 이는 새 로징에서의 퇴역군인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대한 동력을 주입하고 또한 광범한 퇴역군인들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적

극 뛰어들도록 크게 고무격려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퇴역군인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다. 습근평 총서기는 퇴역군인 관리보장기구의 설립을 직접 계획 포치 추동하고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포치를 결책 실시하며 퇴역군인사무 분야의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 해결을 추동하여 새시대 퇴역군인사업이 력사적인 성과를 이루고 력사적인 변혁이 발생하도록 추동했으며 새시대 퇴역군인 제반 사업이 고품질 발전의 새 로징에 활기차게 오르도록 했다.

남창은 ‘8.1’군기가 계양된 곳이다. 최근 몇년간 강서는 ‘존대(尊崇)사업법’을 혁신적으로 보급하고 끊임없이 최적화, 보완했으며 홍색유전자 전승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 성매개 존(사회구역)에 퇴역군인봉사 전문일군을 배치하여 ‘혁명영웅렬사 후손 배려 행동’, ‘군인퇴역’ 한가지 일 한번에 처리’ 등 사업 브랜드를 구축했다. 강서성퇴역군인사무청 청장 궈기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퇴역군인사업의 특점, 중점, 난점, 막힌 점을 둘러싸고 사상정치 선도를 더 심화하고 봉사보장 수준을 더 높이며 전정준비를 위한 봉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업대오 건설을 더 강화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강서 퇴역군인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생동한 실천과 실제적인 성과로 확실하게 전환시킬 것이다.

하북은 혁명의 땅이고 영웅의 땅이며 주둔군의 대성(大省), 병사의 대성, 퇴역군인의 대성이기도 하다. 하북성퇴역군인사무청 청장 리룡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참답게 관철 시달해 퇴역군인 접수배치, 봉사보장, 교육관리, 역할발휘, 권익수호를 착실히 잘하고 봉사보장 능률을 힘써 높여 군인이 전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게 하고 퇴역군인이 전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되게 함으로써 하북대지 퇴역군인사업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낼 것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퇴역군인사업에 일련의 중요 문술을 발표하여 새시대, 새 로징에서의 퇴역군인사업을 잘할 데 대해 전진의 방향을 가리켜주고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했다. 광범한 퇴역군인, 퇴역군인사업일군들은 시종일관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히 나아갈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대학(社会科学学院大学)은 전국적으로 앞장서 ‘퇴역군인 관리보장’ 연구 방향의 석사연구생을 모집했다. 이는 퇴역군인사무부와 중국사회과학원대학이 학과 공동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이다. 이 학과 책임자이며 중국사회과학원대학 정부관리학원 부원장인 설재흥은 “우리는 퇴역군인사업 이론연구와 실천연구를 강화하고 전문 수업의 질을 높이며 퇴역군인 관리보장학과 건설을 추동하여 전국 퇴역군인사업에 높은 수준의 전문인재를 공급하고 고품질의 지력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1월에 설립된 상해퇴역군인학원은 전국 최초의 퇴역군인학원으로 현재 전공 여러 능력, 여러 전공 융합 발전의 ‘군인교원’ 양성을 중점으로 전문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본과생, 연구생을 모집했다. 신속히 학생들을 조직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참답게 학습한 학원 원장 사가화는 향후 더 큰 개혁적 용기, 혁신사유로 끊임없이 난관을 돌파하고 학생모집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며 연구생 양성을 중점으로 양성 모식을 최적화하고 발전 통로를 원활히 하여 사회에 더욱 많은 우수한 ‘군인교원’을 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1만여개 퇴역군인봉사센터(소)가 구축되어있다. 절강성 의오시 분수당촌 퇴역군인봉사소 소장 진위강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의 고무 및 격려하에 퇴역군

인 봉사보장사업을 힘써 잘하고 존의 두개 위원회 성원과 퇴역군인가정 자매련결, 공동건설을 힘써 잘하며 ‘권익대리’를 전개하여 농촌 퇴역군인들에게 취업지도,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난 해결, 취업 능력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몽골 흑호트시 신성구 하이탈로가두 군구사회구역 퇴역군인봉사소 사업일군 소결은 “나는 퇴역군인이자 퇴역군인사업일군이다. 이중 신분은 나로 하여금 퇴역군인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게 하였다. 나는 기증 ‘군무병’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정망으로 관할구 ‘로병사’ 신변의 일을 잘하며 실제 행동으로 기증 퇴역군인사업을 잘하여 군인들이 안심하고 군인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퇴역군인사업일군으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모범퇴역군인’이며 감숙성민병원 호흡및위중증의학과 주임인 호유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종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와 가르침을 명기하고 당과 인민이 부여한 영예를 소중히 여기며 인민군대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우수한 기풍을 자각적으로 고양하고 본직에 립각하여 분발하고 인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녕하지안전력공정유한회사 총경리 왕환은 한창 회사 종업원들과 함께 농업 광(光) 상호 보완 태양에너지발전 대상 현장에서 분투하던 도중 전국 퇴역군인 사업회의 소집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종업원중 퇴역군인들을 소집하여 제1시간에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를 전달 학습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일반 병사에서 기업의 책임자로 되기까지 모두 당과 국가가 창업에 좋은 정책을 제공한 덕분”이라며 “과감히 싸워 승리하고 고생을 참고 견디며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르는 우세를 계속 발휘하여 더 많은 퇴역군인들의 취업, 창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9일 오후, 복건성 삼명시 대전현 전평향 상지촌 회의실에서 촌간부들은 한창 ‘8.1’ 위문 관련 사항을 상의하고 있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접한 촌당지부 서기이며 군대 휴양간부인 림가산은 촌간부들과 함께 조목조목 학습했다. 그는 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아 상지촌의 퇴역군인들이 군인의 본색을 발휘하고 농촌 관리에 참여하도록 인도 격려하며 촌민들을 이끌고 소득 증대 대상을 발전시켜 향촌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 새로운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로징에서 광범한 퇴역군인, 퇴역군인사업일군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참답게 시달하고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강국강군을 위해 봉사와고 봉사보장 수준을 높이며 위업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면에서 새로운 담당과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퇴역군인의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다.

/ 신화넷

조선, 조국해방전쟁 승리 71돐 경축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 기념행진의식이 조선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 신화넷



7월 27일 진행된 조국해방전쟁 전승세대와의 상봉 모임이 조선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 신화넷

조선중앙통신의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여러 행사들을 거행하며 조국해방전쟁 승리 71돐을 경축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상술 행사에 참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이 7월 27일 진행된 조국해방전쟁 전승세대(參戰老兵)와의 상봉 모임에서 발언하였다. 조선인

민군 군관 대표들이 감상을 발표했다. 7월 27일 저녁, 조선은 또 평양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象征方队) 기념행진의식과 성대한 공연을 진행하였다.

7월 26일, 김정은은 평양에서 중조우의담을 참배하고 조중 친선 이 련사들의 영생의 냇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날 김정은은 또 조국해방전쟁 참전 련사묘와 대성산 혁명렬사릉을 참배했다.

/ 신화넷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9월 북경서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공동으로 현 대화를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구축하

자’이다.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의 아프리카측 정상들이 회의에 초청되고 관련 아프리카지역 기구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관련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신화넷

중조 상호 비자 면제 협정, 7월 26일 발효

〈외교련권, 공무련권, 공무일반련권 [련권(공무련행)]을 소지한 인원에 한한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협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효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련권, 공무련권, 공무일반련권을 소지한 공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련권, 공무련권, 련권(공무련행)을 소지한 공민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입국, 출국 또

는 국경 통과 시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면제한다.

그전의 중조 비자 면제 배치에 비해 이번 협정은 “만약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약 상대방 경내에서 30일을 초과하거나 사업, 학습, 정착, 언론 보도 등 활동에 종사할 경우 입국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명확히 했다.

/ 중국령사봉사넷

말레이시아, 브릭스국가 협력기제 가입 신청

말레이시아 총리실은 7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는 올해의 브릭스 의장국인 로씨야에 브릭스국가 협력기제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은 자국을 방문중인 로씨야 외교부장 라프로프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말레이시아의 브릭

스국가 협력기제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브릭스국가 협력기제는 설립 이후 협력 기반이 날로 든든해지고 협력 령역이 점차 확대되어 세계경제성장 촉진, 글로벌 관리 개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신화넷

왕의, 아세안 및 중일한 외교부장 회의 참석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7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및 중일한(10+3) 외교부장 회의에 참석했다.

왕의는 ‘10+3’에 대해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가장 성숙한 기제중 하나라며 20여년간 여러 분야의 실무적 협력을 심화해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도전에 대한 지역 및 국가의 대응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앞으로의 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째, 심층적으로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고 지역 연결을 추진하는 것이

다. 중국은 지역 공급사슬 연결 강화를 지원하고 년내에 ‘10+3 산업, 공급사슬 매칭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 재개를 가속화하여 동아시아 경제 일체화 수준을 지속 향상시킨다.

둘째,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치앙마이 창 의(淸迈倡议)’의 다각화 속에서 신속한 응자 수단을 설립하는 것을 환영하며 국제 경제 및 금융 불안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 보안 네트워크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중국은 올해 ‘10+3 썬 비상 비축 기제’에 대한 지원을 이미 시행했는바 기제 혁신을 논의하고 지역 식량 안보 수준을 향상시킬 용의가 있다.

셋째, 신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디지털 및 녹색 전환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차 생태계 발전을 위한 성명을 리행할지 바란다. 중국측은 10+3 청정에너지 원탁 대화, 동아시아 연해 도시 해양 플라스틱 및 기후 인성(韧性) 싱크탱크 대화 등 행사를 개최해 저탄소경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10+3 중소기업 썬

/ 신화넷